

# 파견 교환학생 수학 보고서

파견대학	국가	영국
	대학명	리젠트런던대학교
파견기간	2023년 09월 ~ 2023년 12월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정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기제 ※ 파견대학 수학 전공:	

## 1. 출국 전 준비사항

###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한화 인슈플러스 유학생 보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2월 15일 종강 이후 3주간의 유럽 여행 계획이 있어서, 보험 가입일을 1월 13일 귀국 날짜에 맞추어 가입했습니다. 여행 중에도 다른 유럽 국가에서 보험이 유효한지 확인했고, 영국의 경우 6개월 이내 거주자는 별도의 비자가 필요하지 않아 학교에서 발급한 비자레터를 이용해 간편하게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비자 소유자로서 자동 입국심사를 받아 서류요청이나 입국 심사 없이 원활한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항공권은 입국 예정일 2달 전에 미리 예약하여 카타르 항공을 이용했습니다. 카타르 항공을 선택한 이유는 학생 혜택으로 10% 할인 및 무료 10kg 추가 수화물, 비행기 내에서의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속도는 빠르진 않았지만 카톡 정도는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사전 체크인을 하여 좌석을 맨 앞으로 선택하여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카타르에서 경유를 해야 해서 비행시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 나. 필요 물품

저는 학교 기숙사의 정원이 초과되어 리젠트 런던 대학교에서 버스로 30분 정도 거리에서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다양한 생활용품을 한국에서 가져갔었는데 런던 현지 상점 및 아마존에서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물건을 챙길 필요는 없던 거 같습니다. 하지만 로션 선크림 샴푸 바디워시는 한국이 더 저렴하기도 하고 제품 자체 성분이 달라서 가져가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짐을 조금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지에서 충분히 구매는 가능하다고 참고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학기중이나 종강이후에 다른 나라나 도시의 여행계획이 있다면 여행용 키트 정도를 구매해서 오시면 좋습니다. 한국음식은 굳이 챙겨올 필요는 없습니다. 런던에 오세요, 서울프라자 등 한국식품을 파는 마트가 많고 거기서 라면 과자 핫반 한국

상품을 쉽게 구매 가능합니다. 물론 한국보다 가격은 비쌉니다.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물건은 국제 어댑터와 멀티탭 정도입니다. 그리고 목베개 보조배터리는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좋은 거 같습니다. 이외에 제가 챙겨간 물건은 작은 우산, 공책, 백팩, 필기구, 노트북, 테니스라켓, 약 정도가 있었습니다. 옷도 많이 챙겨왔는데 나중에는 너무 많아서 종강전에 런던우체국이라는 한인택배 업체를 이용해서 한국에 기념품과 함께 택배로 보냈습니다. 계절에 따라 다르겠지만 옷은 너무 많이 챙길 필요는 없던 거 같습니다. 손톱깎기 양말과 잠옷 등 가벼운 물건들은 근처의 PRIMARK에서 싸게 구매 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런던도 바람이 불면 생각보다 춥습니다. 목도리와 장갑 그리고 따뜻한 점퍼를 필수적으로 챙기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빨래는 홈스테이 집마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속옷과 양말은 충분히 챙기는게 좋습니다. 혹시나 부족하다면 PRIMARK에서 구매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슬리퍼를 신고 생활하기 때문에 슬리퍼도 하나 챙기면 좋습니다. 또 영국에 가기전에 필수적인 것은 contactless cards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트래블 카드 등 다양한 카드 상품이 있는데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하철 버스 같은 대중교통도 저 카드로 이용하면 됩니다. 물론 Oyster Card (런던에서만 쓰이는 교통 카드)를 사용해도 됩니다. 저는 뒤늦게 알아서 활용하지 못했지만 14주이상 거주하는 학생은 학생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필요하시면 신청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 학생증도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국 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적용되니 여행 계획에 맞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파견국가 영국에서는 영어를 사용합니다. 영국영어는 한국에서 배우는 미국영어와는 발음이 차이가 굉장히 크고 사용하는 단어도 조금 달라서 어려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파견 전에 토익 말고 따로 영어회화를 공부 한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미리 공부를 좀 하고 파견을 오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물론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친절하기 때문에 충분히 적응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런던에는 영국 사람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다양한 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렵지만 영어 실력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된 거 같습니다.

문화 차이를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식당입니다. 한국에서는 식당을 가면 알아서 자리에 착석하고 종업원을 부르는 것과 달리 영국에서는 종업원이 자리를 안내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항상 먼저 종업원을 부르지 않고 기다려야 합니다. 밥을 다 먹고 난 후에도 종업원이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산을 요청 해야합니다. 한국처럼 빨리 빨리 밥 먹고 나가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시키고 기다리고 먹고 기다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길게 대화를 나누는 게 일상적입니다. 저에게는 조금 답답한 문화였습니다. 따로 팁을 주지는 않고 서비

스 차지라고 해서 음식 값에 10%정도를 더 결제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영국 식당 문화를 보시고 오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싫었던 부분은 영국은 길에서 흡연을 합니다. 저는 비흡연자이기기도 하고 담배 냄새를 싫어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흡연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사람들은 우산을 쓰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에서도 비가 많이 올 때는 다들 우산을 씁니다. 물론 비가 자주 오고 가랑비가 올 때는 모자만 쓰고 우산을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물가에 대해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살인적입니다. 쉽게 계산하면 청주의 물가의 2~3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외식을 하면 최소 2만원 정도이고 3만원은 보편적입니다. 한식당에서 김치찌개 하나를 시켜 먹으면 3만원입니다. 그리고 식당에서는 공기밥 한 공기가 5천원 콜라 한 캔이 5천원 가까이 합니다. 학교 식당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그래도 만 원 이상입니다. 맛은 제 입맛에 맞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합리적이어서 자주 학교에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물론 과일이나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서 구입하면 한국보다도 저렴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모든 것은 청주보다 2배 이상의 가격입니다. 그래도 런던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도시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나. 파견대학

### 나-1. 대학 선택 이유

저는 영어권 어학과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살면서 유럽을 가본적이 없어서 영국을 우선순위로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젠트 런던 대학교, 셰필드 대학교, 울버햄튼 대학교 세 학교를 고려했습니다. 리젠트 런던 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을 좋아해서 런던에서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을 비롯한 다양한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제 취미가 테니스입니다. 런던에는 SPIN이라는 어플을 통해 다양한 외국인들과 테니스를 쉽게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런테사라는 한인 테니스 모임이 있습니다. 저는 24년 동안 청주 이외의 곳에서 살아 본 적이 없어서 대도시에서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적으로 리젠트 런던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 나-2. 공항 학교

저는 공항픽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조금 아끼실 생각이면 Bolt라는 어플을 사용하시면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버랑 비슷한 어플인데 조금 더 쌉니다. 그렇지만 영국 방문이 처음이고 홈스테이를 하게 되시면 주소를 찾기가 조금 어려울수도 있으니 잘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저는 정규과정이 아니라 어학과정이었기 때문에 따로 영국학교에서 수강신청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화상통화를 통해 레벨테스트를 진행하고 반을 배정 받았습니다. 매 달 시험이 있는데 시험성적이 우수하면 담당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다음 레벨로 갈 수 있습니다. A1 A2 B1 B2 C1 C2 레벨이 있는데 대부분 영국 어학과정이 이러한 체계입니다. 저는 처음 한 달은 B1에서 공부하였고 시험 성적이 좋았고 선생님이 B2레벨의 반으로 가는 것을 추천해주셔서 B2레벨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수업내용은 크게 어려울 것은 없고 한국과의 차이점은 수능이나 토익시험을 잘 보기 위한 영어공부가 아니라 회화를 위한 문법을 배우고 듣기 말하기 쓰기 등 모든 부분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고 열심히 출석하고 공부하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적응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수업을 듣고 소통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 나-4. 기숙사(홈스테이, 셰어룸 등)

저는 기숙사 정원이 이미 초과된 상황이었어서 홈스테이를 선택했습니다. 홈스테이를 하면 집에서도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있고 저녁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불편한 점도 많기 때문에 기숙사에 살 수 있으면 기숙사를 추천드립니다. 홈스테이는 어떠한 집주인을 만나는지 기숙사는 어떠한 룸메이트를 만나는 지가 중요한데 이견은 중요한 거 같습니다.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 홈스테이를 하는 친구들 다양했는데 만족도는 사람마다 다 달랐습니다.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개인 방이 있고 화장실 욕실은 다른 가족들과 공유했습니다. 런던이 집값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시설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저녁도 집주인이 제공해주는데 제 입맛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음식이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 나-5. 교내•외 활동

저는 한국인이 저 한 명이었습니다. 방학 단기로 오는 한국인은 많은데 저처럼 정규학기에 오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영어실력 향상에는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본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본인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았습니다. 처음 가면 파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보트 파티에 참여했었는데 영어도 잘 못하고 엄청나게 활발한 성격은 아니어서 적극적으로 즐기지는 못했지만 재밌었습니다. 저는 학교 기숙사 옆에 있는 테니스 코트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student hub 사이트에서 무료로 신청해서 일본인 친구들과 자주 테니스를 쳤습니다. 그리고 학교 바로 옆에 리젠트 테니스 파크가 있어서 이곳에서 여러 가지 테니스 모임에 신청해서 영국인 친구를 만나서 자주 테니스를 같이 쳤습니다. SPIN 어플을 통해서 여러 국적의 사람들과 다양한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쳐서 너무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15분 거리의 헬스장을 등록해서 비가 와서 테니스를 못 치는 날은 헬스장에서 운동했습니다. 헬스장 테니스장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하기가 좋기 때문에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런던이 좋

은 선택지가 될 거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conversation club이 있는데 이곳에서 다양한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런던에 모든 박물관이 무료이기 때문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박물관을 선호하지는 않지만 워낙 크고 멋진 박물관이 많아서 재밌게 감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파이가이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 먹으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학교 앞에 매장이 있어서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비싸서 자주 사먹지는 못했습니다. 한식당도 런던에 많습니다. 저는 쿠마라는 한식 일식을 둘 다 파는 식당을 추천드립니다. 대박이라는 한식당도 맛있습니다. Flat Iron은 스테이크 전문점인데 가격도 괜찮고 디저트로 주는 아이스크림이 정말 맛있습니다. 런던에 가면 무조건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요금은 상당히 비쌉니다. 대중교통은 데일리캡 제도가 있습니다. 하루에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하면 그 이후는 무제한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입니다. 물론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또 영국의 다른 도시를 많이 여행할 계획이라면 Railcard를 만들어서 기차요금을 할인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3. 여행정보

저는 학기중에는 브라이튼, 브리스톨, 캠브릿지, 옥스퍼드를 일본인 친구들과 여행했습니다. 당일로 다녀와도 충분했습니다. 교통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기차를 타고 가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국가는 체코 프라하를 다녀왔습니다. 큰 도시가 아니어서 2박 3일로 충분했습니다. 비행기 가격도 왕복 15만원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프라하는 물가도 저렴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동유럽은 꼭 방문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가 항공을 이용하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른 나라를 쉽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캐리어같은 위탁수화물을 추가하는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백팩을 꼭 챙겨오셔서 주말에는 배낭만 가지고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종강 후에는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매력이 있었고 딱히 소매치기 같은 범죄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학기중에 여행을 하시고 종강후에는 바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일정을 추천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종강후에는 짐이 너무 많아서 비행기를 탈 때도 수화물을 추가 해야해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기차나 버스를 이용할 때도 한국과는 달리 분실 위험이 많습니다. 또 종강 할 때 쯤에는 한국을 떠난지 4달 정도 되어서 한국이 많이 그리웁니다. 생각보다 빨리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기중에 주말을 이용해서 배낭 여행을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시 잘 모르는 나라를 방문할 때는 한민민박을 가시면 좋습니다. 직원 분들과 다른 한국인 방문객들이 정보도 많이 공유 해주시고 같이 여행도 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 4. 후배들에게 한마디

교환학생을 생각하거나 리젠트 런던 대학교를 고려하고 있는 후배들이 이 글을 읽을텐데 저는 교환학생 그리고 리젠트 런던 대학교 두 가지 모두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도 만나고 여러 나라도 여행하면서 저의 세계관이 넓어지고 좋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영어실력도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만, 다른 학교는 제가 가보지 못해서 쉽게 비교하기 어렵지만 금전적인 여유가 충분한 학생이라면 리젠트 런던 대학교를 추천드립니다.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하고 큰 도시여서 매우 다양한 인종, 국가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에 가기도 정말 편리합니다. 하지만 물가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교환학생을 경험 하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을 돌려서 돌아간다면 다시 또 갈 것입니다. 정말 글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충북대학교 후배들이 저처럼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 5. 사진 자료 첨부







"Thanks to Regent's excellent facilities and friendly team of teachers, I've improved my English language skills, made friend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created some really beautiful memories."

Gyuhyeon Na, South Korea